



이정우

FRONT-END DEVELOPER

1995.05.02. (만 25세)

010-9522-0890

awmaker@kakao.com

서울시 용산구

자기소개서

“제너럴리스트에 스페셜을 더하다.”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획과 디자인,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때문에 제너럴리스트는 협업을 위한 가장 완벽한 인재입니다.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느끼고 깊이 있게 학습한 지식과 직접 아이디어를 찾아 발전시키고 부족한 곳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깊은 이해도는 프로젝트의 질을 높였고, 디자인, 개발팀과 소통하며 UI/UX 설계와 개발 중점사항에 기획이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실현한 경험이 비영리단체를 위한 회계장부관리 서비스 '카운트탭'입니다.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기획한 공익성 프로젝트로 기획과 디자인, 개발팀을 꾸리고 직접 기획과 UI/UX 설계, 프론트엔드 개발, AWS 기반 아키텍처 설계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했기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행착오를 겪었고, 급격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기획,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팀 간의 소통창구가 되어 최적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야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장점은 계획에 따르기보다 변화에 대응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기획과 UI/UX 설계 사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프론트엔드 개발 실력을 더욱 발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고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회사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더 완벽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다.”

군시절, 군사령부의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부대 내 사무실에서는 수기 위주의 사무처리로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사무자동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싶어 엑셀의 도움말을 참고하며 엑셀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노력 끝에 부대 내 모든 사무실의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간부님들을 모두 만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비결은 독학한 엑셀 프로그래밍 기술도 있었지만, 심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하던 습관에 있었습니다. 이미 기존 사용자에게 익숙해진 사무처리 과정을 크게 바꾸면 적응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여 과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간편하고 정확하게 사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한 경험을 살려 클라우드 플랫폼도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타적인 향상심을 품다.”

제 학습 비결은 대학 시절 개발자인 친구가 프로그래밍 질문에 답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답변 덕분에 근거있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은 만큼, 그 이상의 선순환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친구들에게 배운 것들을 알려주었고, 그 친구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든든한 팀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으로 팀원과 함께 성장하며 훨씬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가진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었고, 앞으로 회사에서 이어나갈 선순환은 더 뛰어난 서비스를 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